

제10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성령의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열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으로 ‘감성주의, 상대주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생각’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가운데 또 두드러진 특징이 ‘탈권위주의’입니다. 절대가치를 향해 달려가던 모던시대에 권위자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런 권위자에게 도전하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권위자에게 도전하는 것은 공동체를 해하는 것쯤으로 받아들여졌고, 타락한 권세자들은 그런 사상들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야욕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켰습시다. 독재자들이 대표적입시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시대에 사람들은 더 이상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시다. 오히려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을 능력으로 추앙하곤 합시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 하나님이 세우신 ()

1) 권세들에게 ()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습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 13:1-2)

→ 더 놀라운 사실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습시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합시다. 더구나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시다.

2) ()

로마서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건가요? 불의한 정부와 불법의 리더들에게까지 복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불의와 불법으로 장악한 권세에 무조건 따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중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5:29-32)

→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위였던 공회원들의 말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선언합니다.

“올레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지려 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께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시편 94:20-23)

→ 또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악한 재판장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거나 동조할 수 없습니다. 우선 공의의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시도록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아래서 그들의 불의와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즉 불의와 대항하겠다고 불의한 방법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대가 불의할수록 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다른 점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17)

3) 권세: (_____)

그러면 우리가 복종할 권세와 맞서야 하는 권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1)

→ 우리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세 자체에 복종한다기보다, 권세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가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권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절대로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사단의 까불림에 넘어가,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심판을 자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우리가 (_____)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복종할 권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_____) 순종하라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혼자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길은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
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17)

→ 주의 종들이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도들에게
유익입니다.

2) () 순종하라

탈 권위의 시대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부모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이 세상
은 더 이상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대한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1-3)

3) () 순종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내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그러기
위해 아내는 반드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남편의 어떠함이 아닙니
다. 그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
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에베소서 5:22-25)

4) () 순종하라

각 공동체에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권위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크게는 국가일 수 있고, 작게는 각 공동체의 권위 그룹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 13:1-2)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5)

3.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악용하는 악한 종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다운 지도자는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1) 권세를 주신 ()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이유가, 그 권세 자체보다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듯이, 권세를 위임 받은 지도자들은 언제나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권세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48)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행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1)

→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한 야고보 사도가 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더 많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리더됨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 ()

내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리더는 그 권세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권세를 남용하는 리더들의 특징은 ‘책임’에 대한 경각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 그 권세로 인한 책임감이 없기에 쉽게 남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희생’을 통해 드러납니다. 공동체의 리더는 그 공동체의 모든 아픔을 떠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희생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리더입니다!!!

“내 책임이다.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책임이다. 홍수가 나고 벼락이 쳐도 내 책임이다. 그게 임금이다. 모든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조선의 임금이다. 그게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이다. 내 사람들이 내 일을 하다가 죽었다. 내가 죽인 것이다.”

-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왕의 대사 (한석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중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진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31-35)

3) ()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리더들은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 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1-4)

□ 목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illegible]